

# 설계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...

Put Our Energies Into The Strengthening of Design Competence

吳 明 / 건설교통부 장관

by Oh Myeong

오늘, 대한건축사협회 제30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축문화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오신 회원 여러분과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

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건설관계자 모두에게 잇을 수 없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

「부실공사 추방」을 표방하고, 온 건설업계가 새로운 도약과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발생한 크고 작은 부실사고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자책감을 지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

지금까지 우리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인 발전을 소홀히 한 결과

오늘과 같은 부실시설물을 양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

부실공사라는 후진국적 병폐가 아직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건설정책의 책임자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.

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설계와 성실한 감리, 그리고 건실한 시공을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건축사 여러분!

세계는 바야흐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습니다.

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전쟁, 정보전쟁,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
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제경쟁력의 강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.

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만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며,

국민들도 더 이상 부실설계, 부실시공, 부실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

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

국제인으로서의 넓은 안목을 갖고 기술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.

설계분야의 경쟁력강화는 우리 모든 건축사의 참여와 창의력 발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앞으로 여러분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합니다.

정부에서도 민주화, 지방화,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,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

중지를 모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,

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1995. 10. 24